

[종합]

해남 화원 첫 지역특화산단 지정

208만㎡ 규모 ... 세계 최대 조선소 건립 2016년 매출 7조·3만명이상 고용창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들어설 해남 화원지방산업단지가 전남도 내 첫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지정됐다. 전남도는 대한조선(주)이 지난 3월 조선소 건설을 위해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일대에 화원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해양수

산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28개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다음 주 중 지방산업단지 지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화원지방산단에는 대한조선(주)이 대형 컨테이너선, VLCC(Very Large Crude Carrier·초대형 유조선), LNG

선 등의 건조를 위한 대규모 조선소를 건립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원산단 면적은 208만㎡(육상 100만㎡, 공역수면 108만㎡)에 이르며, 올해 안에 착공해 오는 2010년까지 조선소 건립을 마치고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대한조선은 이 조선소가 가동돼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16년에는 연간 7조원 이상의 매출과 함께 3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지정을 통해 화원산단

은 지난해 11월 전남도 내 모든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19개 소 6천812만㎡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래 최초의 특화산업단지 지정이다. 도는 대한조선, 해남군 등과 함께 이 같은 대규모 고용으로 인한 유입 인구를 1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조선소 인근에 이공기술 수용할 배후 도시와 함께 연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회 친환경·유기농 박람회 전남도 판매부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왼쪽에서 두번째)가 참석자들과 함께 전남지역 친환경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제공)

“기사승고실 폐쇄 강행면 출근투쟁”

기협, 취재 선진화 방안 반대 취재 선진화 개선방안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별위원회 박상범 위원장(KBS 지회장)은 “기자협회가 이미 정해진 합의의 단계에 이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 개선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재환경개선 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대의협상 창구 역할을 맡기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6월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단체장과의 토론회 후 공무원 취재증대의 총리 훈령 제정, 수사기관 기사승고실 존치 등을 골자로 한

취재 선진화 개선방안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별위원회 박상범 위원장(KBS 지회장)은 “기자협회가 이미 정해진 합의의 단계에 이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 개선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재환경개선 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 대의협상 창구 역할을 맡기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6월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단체장과의 토론회 후 공무원 취재증대의 총리 훈령 제정, 수사기관 기사승고실 존치 등을 골자로 한

교황 “가톨릭만이 진정한 교회” 교황청 문서 공표 승인 ... 개신교 등 반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지난 10일 발표한 “가톨릭 이외의 다른 기독교 종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건이 세계 기독교계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내 기독교계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교황청이 ‘그리스도인 일치추진평의회’ 등을 통해 수십년 간 가톨릭-개신교 간 일치 협력에 노력을 쏟아왔고, 국내 일부 기독교계도 이런 흐름에 보조를 맞춰왔던 터라 가톨릭 쪽은 물론 개신교 쪽에서도 그 배경과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 교파들을 통합하기 위한 모인인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일치의 재건’ 교령을 발표한 뒤 줄곧 정교회, 개신교 등과 대화일치를 추구해왔다. 국내 개신교계는 가톨릭-개신교 사이에서 진행돼온 교회일치와 종교 간 가톨릭-개신교 간 일치 협력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가톨릭계와 매년 ‘일치주간’을 통해 대화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권오성 총무는 “적절치 못한 시기의 적절치 못한 문제제기”라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아무튼 철저히 캐야 한다니까요

올해 주택·건물분 재산세 광주 9.8% 전남 5% 늘어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 주택 및 건물 재산세가 지난 해 보다 각각 9.8%,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부과한 올해 1기분(7월) 재산세(과세대상 : 주택 1/2, 건축물)는 지난 해 보다 9.8% 늘어난 3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 및 건물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건물 과세표준 적용률이 지난 해 55%에서 60%로 인상된데다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4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조정됐고,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분양 및 대형건물 신축에 따른 신규 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재산세 최고 납세자는 기

아자동차로 3억4천412만원이며, 롯데쇼핑·금호터미널·금호생명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이 부과한 올해 1기분 재산세 총액은 67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기분 재산세 보다 5.0%(32억 원) 증가한 것으로 주택의 공시지가 및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 시행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율은 평균 3.5%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미주 한인 위암 발생률 백인의 7배”

뉴욕타임스 보도 ... 이민 이후 암 발생률도 높아져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이 위암에 걸리는 비율이 백인에 비해 최대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암저널에 실린 연구논문을 인용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한국인들의 위암 발생률이 다른 아시아권 주민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백인에 비해서 5배에서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 여성은 베트남 여성과 함께 다른 아시아국가 주민에 비해 자궁경관암에 걸려 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들에게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질산염과 아질산염에 보존하는 음식을 섭취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내 베트남 남성도 간암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가 비 히스패닉 남성에 비해 7배나 높았으며, 중국 여성은 낮은 흡연율에도 불구하고 폐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아시아계 비종양학 내과에서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주민의 암 발생 기록을 토대로 실시된 것으로 미국 내 아시아계 주민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암 발생 현황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조사 결과 미국 내 아시아계 주민의 암 발생률이 다른 인종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장질환보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아 암이 아시아계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인 위험요소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미국으로 이주한 뒤 미국식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면서 암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김승연회장 입원 병보석 신청검토

보복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2일 수원 아주대 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회장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해왔으며 이날 구치소 보건요과장의 허가를 받고 오후 1시에 수감 아주대 병원에 외래 진료로 나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곧 재판부에 병보석을 신청하거나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발전연구원 사업계획안 의결

광주발전연구원은 지난 1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원장 공모시까지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 하여금 원장직을 겸임토록 결정했다. 또한 서한기 변호사와 김순홍 세무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7년도 연구사업계획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정 제정안 등을 원안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광주발전연구원 2007년

도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7억 4천여 만원으로 ▲세입예산=광주발전발전 연구원 분리예산 3억 8천여만 원, 시 보조금 3억 6천여만 원, 연구사업비 2억 8천여만 원, 기금 출연금 1억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원 설립허가 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이달 내에 법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해 7월 말에는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신화대로 22번 5층 FAX: 227-9500 접수처
광고: 광주광역시 중구 중앙로 11번 5층 FAX: 227-9500

산행안내

7월 14일(토)
▲무등도요산악회 푸른대연산 7월14일(토) 05시30분 시종원(대)에서 출발 http://cafe.daum.net/mudung1028 T.010-9972-8000
▲빛고을두메산악회 충북 영농원주지선 7월14일(토) 07시 모이현리역에서 출발 http://cafe.daum.net/mudung1028 T.010-9972-8000
▲빛고을두메산악회 충북 영농원주지선 7월14일(토) 07시 모이현리역에서 출발 http://cafe.daum.net/mudung1028 T.010-9972-8000

7월 15일(일)
▲요산회 한전/야산공공농생원 15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T.016-621-7201
▲빛고을광주산악회이산악회 남원 맹천정 7월15일(일) 08시 남원맹천정에서 출발 T.010-4629-5015, 010-8515-0048
▲무등도요산악회 푸른대연산 7월15일(일) 08시 남원맹천정에서 출발 T.010-9972-8000, 011-642-5197
▲한울산악회 영동 취노봉(봉아계곡) 7월15일(일) 07시30분 국제호텔에서 출발 T.010-7171-2682
▲평생산악회 원도 보림도 처자 산악회(태양·보림) T.011-635-9329
▲나사모산악회 지리산 대성당 연산봉 7월15일(일) 06시30분 영주역에서 출발 T.011-645-7796
▲빛고을광주산악회 푸른대연산 7월15일(일) 06시40분 영주역에서 출발 T.011-609-7159, 010-601-9774
▲가북이태미산악회 4차 봉아계곡 7월15일(일) 08시 영주역에서 출발 T.011-609-8533, 011-616-6300
▲광주새물등산악회 강남 선천군 어양산 7월15일(일) 07시30분 광주역에서 출발 T.011-609-8533, 011-616-6300
▲광주새물등산악회 강남 선천군 어양산 7월15일(일) 07시30분 광주역에서 출발 T.011-609-8533, 011-616-6300
▲무등도요산악회 푸른대연산 7월15일(일) 07시30분 국제호텔에서 출발 T.011-645-7796
▲광주새물등산악회 강남 선천군 어양산 7월15일(일) 07시30분 광주역에서 출발 T.011-609-8533, 011-616-6300
▲무등도요산악회 푸른대연산 7월15일(일) 07시30분 국제호텔에서 출발 T.011-645-7796
▲광주새물등산악회 강남 선천군 어양산 7월15일(일) 07시30분 광주역에서 출발 T.011-609-8533, 011-616-6300
▲무등도요산악회 푸른대연산 7월15일(일) 07시30분 국제호텔에서 출발 T.011-645-7796
▲광주새물등산악회 강남 선천군 어양산 7월15일(일) 07시30분 광주역에서 출발 T.011-609-8533, 011-616-6300

분할공고

2007년 7월 2일 주주총회에서 본 회사의 사업부문 중 동로·건축공사업부를 분할하여 (가칭)우리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본 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의와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2일
우리종합건설 주식회사
나주시 신촌로 신도리 73-49
대표이사 장 중 택

공시최고

사 건 2007카9 16
신청인 안양주
전남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700
이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일인 2007. 10. 22. 10: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만일 이를 제출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다.
·종 류 : 자기앞수표
·번 호 : 82232737-8
·금 액 : 각금 1,000,000원(2매)
·발 행 일 : 2007년 7월 2일
·발 행 인 : 장흥축산농협 관산지소
2007년 7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임 수 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농성동] 361-8111
광주본원 [구시청사거리충동] 529-8111
“서울” 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수석학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문제풀이+요약정리 이론 집중 특별반
7월 2일 [첫지도 주,야반]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서류본원: 361-8111
북구본원: 529-8111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3기]
·개강일시 : 주중반: 2007.8.10(금)
·주말반: 2007.8.11(토)
·모집기간 : 7.9(일)~8.10(금)
·수업기간 : 2007.8.10~11.16(4개월/15주)
·수강료 : 200,000
모집인원: 1단계 주중/주말반 각20명(선착순)
수업시간 : (매주 금, 토)09:10~14:30(5강좌)
수료후 특전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 수료증 수여(총장명명)
·전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 취득기회 부여(해당과목)
·각 학원화원 감사 추천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TEL(062)950-3584, 3585, HP.011-614-4160